KiRi 리포트 2016.10.31.
글로벌 이슈

EU, 인프라 투자 요구자본 완화

이혜은 연구원

요약

■ EU 집행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인프라 및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요구자본을 완화하는 등 Solvency Ⅱ를 개정함.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인프라 투자 저해요인이 완화되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, 유럽의 기반산업 개발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또한 유럽지역 내 원활한 자본 흐름을 통해 역내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.

■ EU 집행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인프라 및 유럽장기투자펀드[1]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Solvency Ⅱ를 개정함.[2]

- 이는 자본시장동맹[3](Capital Markets Union)의 시행과제 중 일환으로 장기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유럽 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활성화가 목적임.
- 인프라 투자의 주요 투자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.
- 또한 에너지, 교통, 통신 등 유럽의 필수적인 기반산업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■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적격 인프라 사업(qualifying infrastructure projects)의 범주에 속하는 인프라 투자 대한 요구자본을 완화한 것임.[4]

1) European Long-Term Investment Funds(ELTIFs),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자본이 필요한 비상장 기업(중소기업 포함), 인프라 프로젝트(도로, 항만시설 등)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.
2) European Commission(2016. 4), "Capital Markets Union: Making it easier for insurers to invest in infrastructure".
3) 2014년 11월 장 클로드 융커(Jean Claude Juncker)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세운 투자계획의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과제임. 28개 회원국의 자본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, 장기·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, 국경 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.
4)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(EU) 2016/467.

- 인프라 투자의 비상장 지분투자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존 49%에서 30%로, 채권 또는 대출 형태 투자 중 신용등급 3단계[5](BBB)의 채권은 30%에서 20%로,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40%까지 완화함.
  - 비상장 지분투자는 에너지 파이프라인, 수송링크, 광대역 네트워크 등임.
  - 이는 규제시장, 다자간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요구자본 39%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완화한 것임.
- 또한 유럽장기투자펀드의 요구자본도 일반 주식투자의 요구자본 49% 대신 규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한 39%로 하향 적용됨.
- 적격 인프라 투자의 범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적 현금유동성, 현금흐름 및 수익의 예측가능성과 위기대응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.
  - 투자의 형태는 주식, 채권, 대출이며 반드시 계약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포함해야 함.
  -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경제지역(EEA)이나 OECD 지역의 여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함.

■ **보험회사는 장기 인프라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이지만, 인프라 투자 관련 요구자본이 높은 것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음.**

- 고속도로, 다리 건설 등 공공사업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투자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, 기존 규정에서는 민간사업 투자 시와 동일한 수준의 자본요건을 적용받았음.
  - 이는 보험회사의 장기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, EU 보험회사의 인프라 투자는 2015년 말 기준 총자산의 1% 미만에 불과함.

■ **이번 개정으로 향후 보험회사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, 이를 통해 유럽지역 내 원활한 자본 흐름을 통해 역내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.** KiRi

5) 유럽보험연금감독청(EIOPA)은 채권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단계인 1에서부터 6까지 6단계로 분류함.